

경제신문 스크랩 양식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헤드라인 | 로봇배달 이어 비대면 택배...GS25, 끝없는 '서비스 혁신' |
| 기사링크 |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per/015/0004459607?date=20201202 |
| 본문 (본문 내용 복사) | <p>[✓ 네이버 선결제 후 무인함 접수]</p> <p>편의점 GS25가 냉장택배함, 로봇 배달 등 그동안 보지 못한 신규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. 대부분 업계에서 처음 하는 시도들이다. 참신한 서비스로 유통업계와 소비자의 눈길을 동시에 끌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.</p> <p>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은 1일 네이버와 손잡고 '택배 서비스'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 택배 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. 소비자들은 택배를 보낼 때 점포에 들러 근무자에게 택배를 전달하고 결제할 필요 없이 미리 네이버에서 접수와 결제를 마친 뒤 편의점 무인보관함에 보낼 물건을 넣기만 하면 된다. GS25 관계자는 "올 들어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면서 편의점 택배 수요가 급증했다"며 "중고 거래 이용자와 중소 상공인이 택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다"고 말했다.</p> <p>GS25가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24시간 냉장 택배보관함은 최근 1000개를 돌파했다. 온라인 신선식품 거래가 늘면서 서비스 지역을 서울 강남에서 수도권으로 넓혔다. 지난해 도입한 '반값 택배'도 매달 두 자릿수 이상 접수가 늘고 있다. GS25의 물류망과 배송 차량을 활용해 요금이 일반 택배보다 60%가량 싸다.</p> <p>배달 서비스도 GS25가 업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. 도보 배달원을 직접 모집하는 '우리동네딜리버리' 서비스를 지난 8월 출시한 데 이어 최근 카카오톡 주문하기에 입점했다.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(AI) 로봇 배달 서비스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.</p> <p>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쏟아지는 배경은 GS25가 스스로 정의한 '정체성'과 맞닿아 있다. GS25는 지난해부터 각 점포 간판에 '라이프스타일 플랫폼'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. 포화 상태에 이른 편의점 시장에서 상품보다는 서비스 차별화로 성패가 갈린다는 판단에서다.</p> <p>편의점업계에 따르면 현금자동입출금기(ATM)를 사용한 방문객의 40%가량은 상품 구매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GS25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ATM기를 운용하고 있다.</p> |
| 정리 | <p>[GS 리테일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]</p> <p>✓ 편의점 시장에서 상품보다 서비스 차별화로 성패가 갈림</p> <p>✓ 주요 서비스</p> <p>(1) 비대면 택배서비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네이버 검색창에서 택배 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한 서비스 - 택배를 보낼 때 점포에 들러 근무자에게 택배를 전달하고 결제할 필요 없이 미리 네이버에서 접수와 결제를 마친 뒤 편의점 무인보관함에 보낼 물건을 넣음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면서 편의점 택배 수요가 급증 <p>(2) 24시간 냉장 택배 보관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00개 돌파 - 온라인 신선식품 거래가 늘면서 서비스 지역을 넓힘 <p>(3) '우리 동네 딜리버리' 서비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보 배달원을 직접 모집 <p>(4) 인공지능 로봇 배달 서비스</p> |
| 추가 조사 할 내용 또는 결과 | <p>✓ GS 리테일의 AI 로봇배달 서비스 - '딜리오'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내에 있는 점포에 로봇 배달 서비스를 도입 - LG 전자가 제작한 'LG 클로이 서브봇' 을 빌려 사용 - 로봇 배달 서비스는 주로 건물 내에서 이루어짐 - 소비자가 앱(카카오톡 주문하기)으로 물건을 주문 & 결제하면 점포 근무자는 로봇에 상품을 실어 고객이 있는 장소로 보냄 - 미리 입력된 건물 지도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자율주행 -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문자에게 상품 도착 알림 -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요하면 스스로 무선 호출해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이동 <p>✓ 리테일 테크</p> <p>(1) 신세계 I&C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SG페이에 '바로결제'를 도입 - 이마트24 무인편의점 매장을 운영 - 자율주행 카트 '일라이'를 도입해 무인배송 - '한국형 아마존고'와 같은 무인결제가 가능한 이마트24 김포데이터센터(DC)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➔ 고객이 상품을 집어든 후 매장을 나가기만 하면 클라우드 POS를 통해 고객이 실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전송되고 쓱페이를 통해 결제 ➔ 매장 구현을 위해 30여대의 카메라로 고객의 쇼핑 동선 추적 & 상품 정보 인식 - 클라우드 POS 시스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➔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 수많은 결제 기능부터 멤버십 서비스, 글로벌 결제 서비스 등 POS의 다양한 로직을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놓고, 기업 고객이 원하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 함 <p>(2) CJ 올리브네트웍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식업 매장에 클라우드 기반의 CCTV, 키오스크 등을 설치 <p>(3) 이랜드그룹 - 스파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스파오 타임스퀘어' 점을 무선주파수 인식(RFID)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매장 - 고객이 물건을 찾고 싶을 때 주변 직원이 아니라 매장 내 비치된 태블릿으로 직접 재고를 조회 |
| 연관기사 링크 | <p>GS25 '배달 로봇' 업계 첫 도입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5/0004458830 유통街 강타한 '리테일 테크' 바람 http://www.inews24.com/view/1229554</p> |